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意味와 課題

金 甲 喆

(建國大 副教授)

머 리 말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나라의 教育目標나 方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後者를 조화롭게 달성하자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和德體를 겸비한 主體的 民主市民으로서의 총체적 人格形成過程(政治社會化 political socialization)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개인의 全學習과정의 各水準을 통하여 政治社會化의 全媒體(가정, 학교, 또래집단, 매스·콤, 직장, 사회조직들)에서 이루어지는 廣義의 政治교육體系의 下位體系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政治教育은 個人들이 유아기, 사춘기, 성년기를 거쳐 발전하면서 政治的 自我(political self)를 形成해 나가는 過程에서 國民의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를 다음세대에 傳承하고 보다 알맞는 새로운 政治文化를 形成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한 市民이 政治的 自我를 形成하는 過程에서 政治體制의 目標과 리더십을 설명하고 正當化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올바른 價値평가 기준(취사선택의 척도)을 摺得케 하는 기능을 한다. 즉 옹호·지지해야 할 信念體系와 허위의식으로 人間을 誤導

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判別能力을 學習하는 과정이 곧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다.

이렇게 되면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全社會化 과정에 걸쳐 광범한 영역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紙面의 制約上 그 分析焦點을 大學교육에서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우리 大學교육에서 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필요한가?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意味와 對象은 무엇인가? 同批判教育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몇 가지 問題에 回答하기 위하여 大學教育과정에서 ① 이데올로기의 本質 ② 同批判教育의 意味와 대상 그리고 ③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필요성 ④ 그 과제와 方向을 서술하고 分析해 보기로 한다.

I. 이데올로기의 本質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Ideologie, Ideology)라는 말은 다양하고 애매할 뿐만 아니라 다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① 否定的(批判的), ② 肯定的 또는 ③ 價値中立的(機能的接近) 입장과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의 모호성은 이데올로기를 간단 명료하게

定義할 수 없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어떤 입장에서 관찰하든간에 그것은 일정한 機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人間理性的의 表現으로서의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허위의식>으로 규정하든간에 이데올로기는 人間(개인 또는 집단)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人間生活의 목표와 그 목표성취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회·정치질서를 설명하고 正當化(explain and justify)하는 信念體系(belief system)임에 틀림없다.

만일 政治分析者가 이데올로기라는 各種물감으로 세계지도를 칠한다면 그 색채의 다양함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이와 같이 政治이데올로기의 종류만 해도 다양하다. 民主主義,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民族主義, 自由主義, 保守主義, 改革主義 등과 이들의 混合型 그리고 그 변형을 합하면 수십종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보는 視角과 입장을 기준으로 分類하면 ① 觀念的·唯物論的 입장, ② 현상유지적·변혁적 입장, ③ 機能的 分析 등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에서 우리는 政治이데올로기가 人間の 政治的동기 및 行爲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政權장악과 유지 政治權力的 正當化, 人間慾求의 심리학적 防禦機制(defense mechanism)로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本質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個人과 집단(사회, 민족, 국가 등)의 政治的 행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政治 이데올로기는 個人, 집단, 민족의 政治행태를 지지·옹호하고 指示하기도 하고 또 이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人間은 상호경쟁하는 종교적·과학적 및 사회적 사상들을 선택하고 있으며 또는 이들 信念體系를 확신을 가지고 지지·옹호하기도 한다.

우리 人間은 정치에 있어서도 경쟁적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의 政治行態는 바로 이러한 선택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중에서 어떤 것을 잘못 선택했을 경

<표-1>

정치 이데올로기에 관한 諸見解

| 견 해 | 내 용 | 주 장 자 |
|--------------------------------|--|--|
| 1-1 관념론적 견해 1-2 유물론적 견해 | ○ 정치 이데올로기는 人間理性과 政治행동 사이를 연결시킴. ○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人間の 이해관계와 행동에 의해서 결정됨. ○ 특히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의 이익과 기존 지배체제를 合理化하는 허위의식이라 단정. ※ K. 만하임에 영향을 미침. | 헤 겔 K. 마르크스 |
| 2-1 현상유지론 2-2 현상변화 이론 | ○ 지배계급의 신념체계 ○ 기존 질서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수단. ※ 통치 이데올로기라고도 함. ○ 사회 하층 階級の 信念體系이며 革命的 變化를 合理化하는 수단. ※ 革命 이데올로기라고도 함. | 마르크스주의적 派生物 1950年代 이후의 공산주의 체제를 分析하는 學者들 |
| 3-1 사회심리학적 이론 3-2 사회정치학적 이론 | ○ 사람은 기존 가치체제와 규범하에서 성취할 수 없는 욕구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창안하고 利用함. ○ 政治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키 위해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킴. ※ 政治安定의 필수조건. | S. 프로이드 E. 프 롬 T. 아도르노 D. 이스턴 R. 마 키 버 G. 모 스·카 R. 다 알 |

우, 그것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의 本質은 객관적으로 分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선택의 기준은 대상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투영하고 실제로 作動하고 있는 政治행태(政治집단의 성격, 피치자의 자율성의 범위, 정치과정)와의 관련성을 體系的으로 分析함으로써 얻은 결론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정치 이데올로기를 좀더 실질적으로 정의하면 그것은 기존의 정치 질서 또는 앞으로 실현코져 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아울러 이들 정치질서를 성취키 위한 전략(과정, 체제,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있는 信念體系라고 할 수 있다.

칼·리벤휐타인은 광의의 이데올로기를 「人生에 대한 人間의 態度와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의 存在를 설명하는 사상과 신념의 일관된 통합적 패턴이며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과 신념에 상응하는 행동패턴을 지지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데올로기는 어떤 개인과 집단(또는 계층·계급)이 사회와 자연에 대해서 품고 있는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一貫性 있는 觀念形態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① 體系性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의견이나 감정 등과는 다르며 ② 가치판단과 미래에의 희망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 과학 그 자체와도 구별된다. 그리고 그것은 ③ 현실적으로 생활하며 행동하고 있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계층·계급)이 형성주체라는 점에서 현실로부터 전적으로 抽象化된 논리적 명제와도 구별된다. 현재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전형적인 이데올로기로서는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사회관으로서의 사회사상 또는 정치사상을 들 수가 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등은 그 일케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로버트 다알은 「정치체제의 지도자들은 그 체제의 리더쉽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취지의 지속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한덩어리의 敎義를 발전시킨다」고 설명하고 이것이 정치이데올로기라

고 정의하였다. 다알에 의하면 정치지도자가 이데올로기를 發展시키는 이유는 정치적 정통성(political legitimacy)을 확보하려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원래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여러가지로 비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데올로기는 現實과 유리된 일종의 공상이라는 것이며 현실과 부합치 않은 관념을 가지고 현실을 변호하며 美化시키려 한다고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런 데서부터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영역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이데올로기는 단지 사회를 이해하는 인식방법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치목적에 동조하는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유력한 說得方法이 되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불가결의 무기로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 이데올로기는 과거에 있어서는 宗教와 관습이 수행해 왔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규정해 볼 때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함을 알 수 있겠다. 긍정적이며·기능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부정적·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데올로기를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표 1 참조).

前者는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기능 곧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統合, 團結, 正體性의 기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後者는 바로 이데올로기가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觀念形態를 가지고 대중을 잘못 인도하는 허위의식을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긍정적 의미로서는 人間의 존엄성과 自律性에 바탕을 둔 사상, 신념, 가치관을 포함한 세계관을, 부정적으로는 허위 의식(잘못된 인식)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허위 의식은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 비판(Ideologiekritik)의 대상이 바로 이 잘못된 세계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II.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意味와 對象

1.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意味와 任務

인간사회는 일정한 因果法則에 따라서 발전하는가?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 등은 특정한 歷史발전 단계에서만 존재하는가? 인간관계의 갈등현상은 왜 존재하는가? 특정한 世界觀的 이데올로기(예컨대 全體主義 이데올로기)만이 人間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唯一한 處方을 제시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인간이 오랫동안 설명하고 해답하려고 노력했던 문제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탐구와 해답을 시도한 사회 사상가들의 결론은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고 보는 분석가들이 많다.

인간사회의 현실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데올로기는 기껏했자 사회현상을 묘사·설명하는 추상화된 모델 또는 構想化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한 관찰자는 코끼리를 기둥으로, 다른 사람은 바람벽으로, 세째 사람은 구렁이로 묘사한다. 그런데 이들의 오류는 코끼리를 묘사함에 있어서 코끼리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한 부분을 전체로 묘사하려 한 데 있다. 더우기 어떤 사상가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할 의도(즉, 선입견)를 가지고 복잡한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추상화된 모델로 설명코자 할 때 그는 현실사회의 諸症狀(Syndromes)을 誤診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려는 처방(예컨대 사회改革 또는 폭력혁명)이 잘못되어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批判은 일차적으로 現實과 이것을 잘못 규정하여 생긴 非現實을 識別해 내는 작업을 그 임무로 한다. 歷史를 철학적 도식으로 單純化하는 史觀, 人間을 手段으로 전락시키는 反人道主義的 人間觀, 내 것은 모두 진리이고 남의 것은 거짓으로 단정하는 兩分論的 黨派性에 기초한 政治 이데올로기는 있는 그대로의 現實이 아니라 非現實을 現實인 양 꾸며놓은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現實을 왜곡한 觀念形態로써 人間과 社會를 잘못 인도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것이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첫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모두 허위의식과 現實을 왜곡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모조리 비판하자는 것이 아님은 이로써 확실해 졌다고 보겠다.

둘째로 이데올로기의 비판은 “객관성(보편성)” 또는 “과학적(scientific)”이라는 수식어의 美裝(cloak) 안에 숨겨있는 실제적 동기를 폭로하는 일을 그 임무로 해야 한다. 전형적 예로서 칼·마르크스의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를 들 수 있다. 그가 기존 이데올로기를 한 특정사회에서 결정된 계급적인 사회의식형태로 단정하고 이것을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허위의식 형태」로 규정하면서도 자신의 「사회혁명」론(자본주의 붕괴론, 계급투쟁론 등)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科學的 理論”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상에 보편적인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유일하게 이성적이며 보편 타당한 것으로 미화하나 이러한 “科學的”이라는 가식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는 계급투쟁을 선동하여 기존체제를 폭력으로 혁명하자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가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대상이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그것으로 轉化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를 의식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오늘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관념적 형태로 묘사하여 이것이 社會進化法則인양 도식화하고 이것으로써 공산당 리더십의 특수이익(공산당의 政權장악과 一黨獨재體系유지)을 은폐하고 그 숨겨진 의도를 합리화하는 허위의식이 되어 버렸다.

이데올로기 비판의 세계 임무는 이데올로기 뒤에 숨겨진 實體를 폭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가 갖는 黨派性을 파헤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 형성근거 및 동기를 밝혀냄으로써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렇게 하여 객관적·비교분석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칼·만하임은 관념과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형성된 사회의 諸條件에 의하여 그리고 그 인식주체의 사회적 위치에 의하여 선택되고 형성된다고 보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념형태인 이데올로기는 보편성의 탈을 쓰고 한 시대를 지배하고 한걸음 나아가 그 시대의 未來를 예시하고 약속을 한다. 간추려 말하면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黨派性을 은폐하고 보편적 진리라는 탈을 쓰고 사람을 오도하려 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의 문제가 등장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은폐되어진 본래의 모순(특정계급의 이익을 合理化하는 黨派性)을 들추어 내는 것을 그 임무로 해야 한다.

2.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대상

우리는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意味와 그 主要關心영역을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비판교육의 現實의 對象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例示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政治이데올로기를 政治體系의 形態와 社會·經濟的 發展水準을 기준하여 4개 集團으로 범주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이데올로기에 內在하는 허위허식의 정도는 $A < C$, $B < D$, $C < D$ 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에 관한 교육과 운동의 強度, 즉 통치엘리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政治이데올로기교육의 강제성의 정도는 $A < C$, $B < D$ 로 표시할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우리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대상별 우선순위는 ① D, ② C, ③ B, ④ A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批判의 對象을 내용별로 좀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마르크스·레닌主義(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變型(金日成主義, 毛澤東사상, 티토주의, 카스트로 주의 등)
- ② 古典的 마르크스主義
- ③ 네오 마르크스主義
- ④ 유로컴뮤니즘
- ⑤ 나찌즘, 파시즘, 軍國主義
- ⑥ 해방신학, New Left
- ⑦ 事大主義, 쇼비니즘, 植民史觀
- ⑧ 여타 폭력적·急進主義사상들

Ⅲ.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必要性

人間의 삶은 어떤 意味에서는 순간 순간의 決定과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크게는 삶의 목표, 政治체제, 이데올로기 혹은 정당을 선택하고, 적게는 직업, 종교(교회), 전공학과를 선택하고 決定한다.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政治教育의 下位體系로서 個人과 집단의 認知體系(cognitive system) 가치 태도 信念)에 영향을 미쳐 國家의 政治文化를 유지, 傳承, 刷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① 사회 경제적 발전단계(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와 대내외적 환경의 특수성을 지혜롭게 헤아려 안정된 민주주의(stable

〈표-2〉

政治이데올로기의 存在形態

| 區 分 | | 政治體系의 形態 | |
|--------------------------|----|------------|------------|
| 社 發 會 展 經 水 濟 準 | | 多元主義的 開放社會 | 全體主義的 閉鎖社會 |
| | 높음 | A | C |
| | 낮음 | B | D |

A : 先進民主社會의 이데올로기
西구라파, 美,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日本 등

B : 非共產主義開發途上國家들의 이데올로기

C : 先進共產黨國家들(東歐, 소련)의 이데올

로기

D : 北韓, 印支, 中共 등의 이데올로기

※ D형의 典型的 例는 金日成主體思想이라고 할 수 있음.

democracy)를 제도화하고 ② 민족적 자결원칙에 입각한 민족통일의 성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오늘을 사는 젊은 知性世代가 그들의 선택과 決定을 얼마만치 지혜롭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비유컨대 백화점에서 상품의 선택행위에 있어서 그럴듯한 상표와 포장에 현혹되어 가짜 상품인줄 모르고 속아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事前에 充分한 지식과 分析方法을 學習시키자는 것이다.

政治이데올로기 선택의 경우는 상품 경우보다 훨씬 個人과 민족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意味에서 모든 政治體系는 그 成員들에게 政治教育과 그 下位體系로서의 이데올로기 教育(및 同批判教育)을 실시한다. 이는 競爭하는 政治이데올로기들에 대한 현명한 선별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데 그 目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요청이 우리大學교육에서 크게 부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나라의 當面과제는 發展과 安定的의 조화에 있는 바, 이는 무엇보다 安定된 民主主義(stable democracy-民主主義와 政治的安定的의 조화)의 制度化가 先決要件이 된다. 安定된 民主主義의 제도화는 自然發生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政治社會化的의 결과라는 것이 經驗的分析의 결론이다. 이는 未來의 엘리트가 될 靑少年에게 중국에는 人格形成으로 귀결되는 이데올로기 批判能力을 길러주어야 한다.

(2) 지금 이 시각에도 南北韓間에는 體制的·이데올로기의 競爭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民族統一이 중국에는 우리民族成員의 自決原則에 입각하여 성취될 수 밖에 없다고 볼 때 統一祖國의 體制와 이데올로기의 형태는 우리의 政治的 선택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후대가 참세계관과 人間觀에 입각한 政治理念과 黨派의 이데올로기를 식별하여 참된 선택을 하는 人格體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強大國들 사이에

진 우리나라와 民族이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88올림픽의 개최, 中共 및 소련과의 多角的 접촉의 擴大, 장차 실현될 수 밖에 없는 四強의 南北交叉承認 등 우리사회의 開放度의 擴大와 더불어 밀어닥친 각종 政治的·사상적 조류에 主體的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活性化가 필요하다.

(4) 그동안의 우리大學의 만성적 학원소요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一部學生의 急進主義의 사상경향을 醇化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서 健全한 大學文化를 定立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필요하며 이것은 틀림없이 이 目的에 공헌할 것이다.

Ⅳ.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과제와 方向

첫째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學問體系 定立을 위하여 유사인접科目 특히 國民精神教育, 政治教育, 국민윤리, 反共教育 등 유사科目간의 學問領域(boundary)을 구획하고 중첩部分의 축소를 조정하는 作業이 요청된다. 비슷한 내용을 科目名을 바꾸어 교수하는 낭비와 비능률은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研究(교수내용과 方法 등), 교육환경(시설과 사회적 풍토), 교수진 등 극복해야 과제가 적지 않다. 政府와 大學當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추려보면 사람과 돈으로 요약되기도 한다.

셋째 교수方法으로서 比較이데올로기 分析方法 등 社會科學的 接近方法을 원용하여 피교육자의 科學的 판단력을 스스로 體得케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急進主義的 이데올로기의 發生원인, 숨겨진 의도, 특색, 기능을 사회·경제적 환경과 政治文化, 주창자의 퍼스널리티, 政治體制的 형태 등 諸條件에 입각하여 유사한 그리고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比較分析함으로써 學生 스스로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좋을 것이다.

네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方向설정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마련인 政治的·社會的 갈등의 원인分析과 해소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革命的方法과 점진적 改革方法의 장단점을 比較分析케 하여 單一因果論的(monocausal), 兩分論的 오류를 깨닫게 하고 理性的 對話와 合理的 妥協의 장점을 體得케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政權안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政治體制的 우월성을 伸張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民主政治는 政治的 反對意見(polical opposition, 즉 야당)을 포용하는 政治的 多元主義를 志向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政治社會化의 媒體들, 특히 그 침투도가 날로 擴大되어 가는 大衆媒體(T.V 등)과 政府政策이 政治教育과 그 下位體制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方向과 보조를 맞추어 教育환경을 소화해야 한다.

일곱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연구자료를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同담당교수들에게는 이데올로기 관련서적과 文獻의 대담한 개방이 요청되고 있다.

맺는 말

이데올로기들은 肯定的·機能的인 것과 否定的인 것을 兩極으로 하는 연속선 상에 많은 혼합形態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肯定的 이데올로기는 人間社會의 信念體系로서 이것은 人間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념적 기준을 제공한다. 비유컨데 이데올로기는 人生航海에 있어서 해도와 나침반의 역할

을 한다. 즉, 이데올로기는 個人과 집단의 판단과 行動의 길잡이가 된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危機管理와 統合의 道具(tool)로서 역할을 한다. 이데올로기는 個人과 민족의 主體性을 형성토록 돕는다. 이데올로기는 人間이 그들의 세계를 보는 안경이고 자신을 보는 거울이며 他人이 自己를 보는 창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는 個人 및 집단생활에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行動을 자극하는 역동적 힘으로 作動한다.

그러나 전체주의적 내지 획일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 기능을 악용하여 黨派的 이익을 全體의 이익으로, 교조적 세계관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릇 믿게하여 사람의 판단과 행위를 오도한다. 그리하여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참된 세계관과 인간관에 입각한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옹호해야 할 信念體系이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 평등, 生命의 존귀함 등 인도주의 위에 서있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한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비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여러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받아 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우리가 옹호해야 할 이데올로기와 거부해야 할 이데올로기를 分明히 判別할 수 있는 主體的이며 자율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함을 의미한다.*